

교육부 종합평가 **최우수** 사이버대학교 (2007)

# 서울사이버대학교

입학문의 02-944-5000  
www.iscu.ac.kr

최고 교수진  
최첨단 16,000m<sup>2</sup> 캠퍼스



방송국 수준 스튜디오



멀티미디어 강의실



차이코프스키홀

학교법인  
신일학원



서울사이버대학교

www.iscu.ac.kr

4호선 2007 교육부 종합평가 최우수 서울사이버대학교 방문을 환영합니다. 지하철 4호선 미아(서울사이버대학)역 입니다.

Seoul Cyber University 2013, vol.22

# SCU e 이야기

e 세상을 움직이는  
서울사이버대학교



DT브랜드파워대상



Vol.22

**SCU Jump up**

개교 이래 첫 석사학위자 배출  
ACU 프로젝트 그 현장을 가다  
SCU VISION 2022

**Special Theme**

말라위 의료의 희망으로 - 김수지 석좌교수(보건행정학과)  
해외명사 - 주한미군 제2사단장 토마스밴들(Thomas S. Vandal)

**SCU Fly High**

헤이리마을 도자기 체험



WELCOME  
1st Round Table Meeting on ASEAN Cyber University Project

SEPT. 3, 2013

MINISTRY OF EDUCATION

SEOUL CYBER UNIVERSITY



학교법인 신일학원 서울사이버대학교  
www.iscu.ac.kr



## 꽃 속에 숨겨진 삶의 명암 | 1987 |

샤를르 벨 | Charles Belle |  
| 1956~ |

샤를르 벨(Charles Belle)의 친근한 꽃(제라늄) 그림은 프랑스 정물화의 유서 깊고 뛰어난 전통이 현대에도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강렬한 색, 박력있는 화법, 그리고 큰 스케일의 정열적으로 표현한 그의 그림들은 단순한 범주의 경계를 뛰어넘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꽃 속에 숨겨진 삶의 명암(1987)>은 꽃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여 색, 형태, 리듬을 이용한 강렬하고 눈부신 구성을 이루어 냈으로써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스케일의 꽃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작품들은 현재 우리 대학을 비롯한 주요 기관에 전시되어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 가을호 표지 이야기

ACU 설립에 대한 원탁회의 '아세안의 아세안'을 위한 이라닝에 참석한 아세안 지역 주요대학의 고위급 관계자들과 SCU 강인 총장앞줄 좌측에서 여섯 번째

발행일 2013년 10월  
발행처 서울사이버대학교  
편집주간 차명희 교수  
편집위원 김영민, 김현아, 박병석, 심선경, 홍선관 교수  
기획편집 서울사이버대학교 출판부 (02)944-5325,  
(주)성우에드컴 (02)890-0900

### 02 Cyber Gallery

#### SCU Jump up

- 04 SCU FOCUS
  - ① 2012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 ② ACU 프로젝트, 그 현장을 가다
- 12 SCU TODAY
  - ① SCU VISION 2022
  - ② 한여름밤 우리가곡과 함께하는 야외음악회
  - ③ 2013 예술의전당 청소년 음악회
  - ④ 2013 서울사이버 국제디자인대전 + 제1회 모바일 아이디어 영상 공모전
  - ⑤ 어르신 장수사진 무료촬영
  - ⑥ SCU 지역 및 산악회 연합 가을 산행
  - ⑦ 서울사이버대학교 후원 2013 프리마돈나 앙상블

#### Special Theme

- 24 Theme Interview
  - ① 말라위 의료의 희망으로 - 김수지 석좌교수(보건행정학과)
  - ② 재능기부로 나눔을 실천하다
    - 휴먼서비스대학원 이문숙, 정상원 교수
    -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이향아, 이석민 교수
  - ③ 해외명사 - 주한미군 제2사단장 '토마스 밴들' 소장을 만나다
  - ④ 배움에 노소(老小)없다
    - 최보출 학우(상담심리학과), 한진희 학우(법무행정학과)
  - ⑤ 글로벌 동문의 빛나는 졸업장 - 장인옥 원우(상담심리대학원)
  - ⑥ 사제지정 - 부동산학과 홍선관 교수 & 문화예술경영학과 최진숙 학우
  - ⑦ 대학원 생활의 든든한 길라잡이 '오프라인 스터디'
    - 정신병리연구회

#### SCU Fly High

- 38 행복문화체험 헤이리마을 도자기체험

#### SCU Info

- 42 미디어 읽기 '진짜 사나이'로 만나는 군대 이야기 - 이정원 교수(군경상담학과)
- 44 교육정보 스마트폰에 인생의 열쇠가 있다
- 46 SCU Culture
- 48 SCU News 학교소식
- 50 Best of Best SCU 교수동정

2012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 개교 이래 첫 석사학위자 배출

상담심리, 휴먼서비스 대학원 첫 석사학위수여자 배출  
71세 최고령 졸업자 및 20세 최연소자 포함, 총 806명의 재학생에게 학위 수여



학위수여식 후, 졸업생들이 '한여름의 눈 내리는 졸업식' 장면을 연출하며 기념 촬영

본교 차이코프스키홀에서 8월 24일(토) 2시, 2013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학위수여식을 통해 2001년 개교 이래 총 1만 7,227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었다. 금번 졸업식에서는 총 806명의 졸업생이 학사학위를 수여 받았으며, 최고령자 최보출씨(71, 상담심리학과)와 최연소자 한진희씨(20, 법무행정학과)가 포함되었다.



01. 학위증을 수여중인 강인 총장  
02. 학위수여식 사회를 맡은 권구순 교수, 차명희 교수



2012년 후기 학위수여식 축사 중인 조원규 이사



졸업생들과 함께한 강인 총장



졸업식 행사로 진행된 '희망트리에 여러분의 희망을 달아주세요' 이벤트에서 10년 후 자신의 메시지를 희망트리에 달고 있는 강인 총장



총장상 수상자 배우 권오중씨(휴먼서비스대학원 사회서비스 전공)

개교 이래 첫 석사학위수여자도 배출되었다. 사회서비스 전공 35명, 상담심리 전공 33명 총 68명이 석사학위수여자며, 지난 2011년 휴먼서비스대학원과 상담심리대학원 설립 2년 만이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배우 권오중씨가 사회복지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희망트리에 '10년 후 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작성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 행사 등이 마련됐다. 강인 총장은 "일과 직장, 학업을 병행하며 1인 다역을 성실히 감당한 졸업생들이 너무도 자랑스럽다"며, "모든 과정을 잘 수학(修學)한 졸업생들이 향후 사회 각 분야에서 모교를 빛내는 자랑스런 동문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scu.ac.kr](http://scu.ac.kr)

# 아세안 사이버대학 ACU 프로젝트, 그 현장을 가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아세안 대학연합(AUN)의 회원 대학이자 아세안 사이버대학교 ACU 설립 프로젝트의 주 협력대학으로서, 지난 2012년부터 ACU의 발전과 확대에 노력을 쏟고 있다. 올 해에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 ACU의 발전과 한국-아세안 간 우호협력 관계를 선도한 서울사이버대학교, 유난히 분주했던 ACU 프로젝트 현장들을 만나 본다.

글 | 편집부



01. 프로젝트 추진 경과보고 발표 현장  
02. 회원국 참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이근우 교육부 국장  
03. 프로젝트 추진 경과보고 발표현장  
(좌측부터 강인 총장, 이근우 교육부 국장, 김우정 교수)

른 나라의 팀들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이번 교육의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또한 ACU 설립사무국 박소화 부국장은 "콘텐츠 개발 관련 스태프들의 공동 역량과 전문 역량 향상의 단기 집중 프로그램으로 국제범용 톨인 캡티브이트를 활용하여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련 스태프들의 직무과정 연습과 시뮬레이션을 통한 협력학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교육의 목적"이라며 "장기적으로는 한국과 아세안 이러닝 교육이 서로에게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ACU 프로젝트의 비전을 밝혔다.

## ACU 사무국 원탁회의 개최

ACU 사무국은 지난 9월 3일 서울사이버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ACU 설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원탁회의 '아세안의, 아세안을 위한 이러닝'을 개최하였다. 아세안 지역 주요 대학의 고위급 관계자들이 초청된 가운데, 서울사이버대학교 이러닝 운영 현황을 소개하고 아세안 국가에서 주목받고 있는 국내 이러닝을 널리 알리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이날 기조 강연자로 황대준 성균관대학교 교수(한국학술교육정보원 前 원장)는 전 세계 이러닝 트렌드와 이를 통한 ACU 프로젝트의 도전 과제와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참석자들의 뜨거운 공감을 얻었다. 또한 각 대학 및 기관 관계자들은 이러닝 활용 현황을 발표하고 앞으로 서울사이버대학교와 협력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시간을 가졌다.

이튿날인 9월 4일 코엑스에서 전일 원탁회의에서 발표된 TIMP 대표 대학들의 이러닝 현황 특강과 사전에 실시된 설문 결과를 가지고 이러닝 관련 주요 성공요소에 대한 각 대학들의 중요도 인식과 현 수행수준 간의 차

## CLMV 이러닝 역량 강화를 위한 captivate 집중교육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지난 8월 19일부터 30일까지 약 2주간 ACU 회원국의 이러닝 담당자들(과목 개발 교수자+교수설계자+ 콘텐츠 개발자)을 위한 집중 교육을 실시하였다. 캄보디아 공과대학, 라오스 국립대학, 미얀마 기술대학 및 베트남 하노이 공과대학에서 대표로 참가한 이러닝 전문가 18명은, 실제 개발 과목을 중심으로 이러닝 콘텐츠 제작의 전 과정을 실습형 강의, 개별 코칭, 과제 수행을 통해 그 노하우를 습득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 참여한 라오스 국립대학 교수인 Phinseng Chan Ngakham은 "다

## 아세안 사이버대학 프로젝트(ASEAN Cyber University Project)란?

한국과 ASEAN(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을 아우르는 한-아세안 고등교육 협력 체제를 지향하며, 아세안 사이버대학 설립을 목표로 아세안의 이러닝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지난 2009년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합의됐으며, 교육부의 주관 하에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서울사이버대학교가 한국측 주 협력대학으로 선정되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아세안 고등교육의 이러닝 문제점과 과제에 대한 공감과 합의를 이루었다. 각 참여자들이 3개 그룹으로 나뉘어 각 과제에 대한 액션 플랜 수립을 위하여 긍정 심리학의 조직 개발론을 활용한 핵심 요소 접근법(Appreciative Inquiry)을 통해 향후 ACU를 통하여 한국-아세안 국가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협의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 이러닝 컨퍼런스 : 2013 한-아세안 특별세션

지난 9월 4일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 홀에서는 '아세안을 위한 이러닝의 새 지평(New Horizon of e-Learning through ASEAN)'이라는 주제 아래 국제 이러닝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

2013년 '이러닝 국제회의' 특별 세션으로 개최된 이번 컨퍼런스는, ACU 회원기관인 캄보디아 공과대학, 라오스 국립대학, 미얀마 기술대학 및 베트남 하노이 공과대학의 이러닝 책임자를 대상으로 ACU 프로젝트를 통한 연구 과제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였다.



01. 아세안 대학의 이러닝 현황 회의를 진행 중인 권구순 국장 | 02. 한·아세안 이러닝 고등교육 증진을 위한 주제별 토의 중인 참석자들  
03. 한·아세안 고등교육 협력방안을 발표 중인 박소화 부국장 | 04. 연구과제를 발표 중인 참가자 | 05. 홍보영상 발표  
06. 환영사를 발표하고 있는 강인 총장 | 07. 기초 강연 중인 황대준 교수 | 08. Capivate 집합교육 참가자들

오전 10시 ACU 프로젝트의 발표로 시작된 컨퍼런스는 각국 참여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이러닝 관련 연구 과제의 주제 발표로 이어졌다. 연구과제 발표 후에는 KERIS 서종원 연구위원, 충북대 이옥화 교수와 함께 이러닝을 통한 아세안 고등교육 발전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이러닝 컨퍼런스는 회원국들의 주체적인 이러닝 교육 활성화에 촉매제 역할을 하는 한편, ACU의 현안 과제 및 이러닝 추진 연구과제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공유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다.

#### ACU 프로젝트 4차 운영위원회의 개최

서울사이버대학교 ACU 사무국은 지난 9월 6일 'ACU 프로젝트 4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운영위원회는 ACU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논의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협의하는데 그 목적에 있다. 그동안 베트남 하노이, 태국 방콕, 캄보디아 프놈펜 순으로 각국 및 기관이 순차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왔으며, 한국은 2013 이러닝 코리아 초청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ACU 운영위원회의 개최를 맡게 되었다. 프로젝트 초기 회원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정부 대표 및 회원기관(캄보디아 공과대학, 라오스 국립대학, 미얀마 기술대학, 베트남 하노이 공과대학) 대표진, 아세안대학연합(AUN) 사무국장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경과보고 및 향후 운영에 필요한 지침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2014년 ACU 프로젝트는 물론, 2015년 예정인 ACU 대학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과제를 합의하는 성과를 이뤄내기도 했다.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주축이 되어 개최한 이번 운영위원회의는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이러닝 경험과 기술적 우위, 스태프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리더 역할을 재확인하는 계기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SCU



**교육목적**

세계 10대 사이버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한 장기 전략의 구상

명문 사이버대학으로서의 미래상을 도출하고 주력분야 선정

다른 대학과의 차별성을 마련하고 특성을 부각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

서울사이버대학교는 2012년 본 대학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새로운 미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특성화추진단을 구성하였다. SCU VISION 2012의 성과를 평가하고 2022년까지의 미래 교육 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토대로 SCU의 장기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특성화방안을 마련하였다. 향후 SCU에서 주력하고 집중할 분야를 선정하고 육성하여 특성화된 명문사이버대학의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한 'SCU VISION 2022'의 발전계획을 소개한다.

글 | 편집부

서울사이버대학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발전계획 VISION 2012를 기반으로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 모두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냈다. 이러한 대학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한 단계 더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VISION 2012에서 계승·발전할 부분과 수정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 또한 미진한 부분들을 도출하여 VISION 2022에 반영하였다.

교육수요자의 요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등의 맞춤형 교육 체제구축과 이러닝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수업모형 및 시스템 개발 등의 기술 고도화와 지속적인 이러닝 기술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멘토링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학생자치기구 지원 등을 통하여 학생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며, 학생상당 및 지역캠퍼스를 활용한 학생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교원 연구역량의 제고와 우수교원 확보 및 교원 성과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며, 입학 자원의 다변화를 도모하고 대학의 사회기여를 위하여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입학기회와 OCW(Open Course Ware)를 통한 일반인 대상 교육을 확대 제공한다.

이에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이번 'VISION 2022'을 통해 전문역량, 자기주도적 문제해결능력, 확고한 미래관, 리더십, 글로벌 마인드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과 성공적인 산학연계를 위한 선도적 연구활성화를 통해 2022 세계 일류 사이버대학교로 발돋움하고자 한다. SCU

SCU VISION 2022  
**글로벌 TOP10 사이버대학교**

- 교육·콘텐츠 수월성 제고
- 교원·연구 역량 강화
- 학생 만족도 제고
- 학생 선발의 다양화
- 지속 가능 경영 실현
- 행정체제 운영역량 강화
- 차세대 정보인프라 구축

## 서울사이버대학교가 협찬하는 한여름밤 우리가곡과 함께하는 야외음악회

예술의전당에서 서울사이버대학교 협찬으로 무료 야외 프로그램 '한여름밤 우리가곡과 함께하는 야외음악회'를 선보였다. 이번 공연은 8월 한 달 동안 매주 토요일 신세계스퀘어 야외무대에서 무료공연으로 펼쳐졌다. 특히 한국가곡에 집중하여 아름다운 우리 가곡의 대중화를 통해 국민들이 클래식 음악과 좀 더 가까워지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총 4회에 걸쳐 토요일 한여름밤을 수놓을 이번 야외음악회는 매주 다른 테마로 진행되었다. <명사와 명곡의 만남>으로 우리 운문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아! 대한민국>으로 분단의 현실과, 평화의 염원을 담은 노래들을 선보이며, <내 마음의 노래>로 익숙하면서도 낭만적인 가곡을, <명곡의 향기>를 통해 가을을 맞는 운치 있는 작품들을 선보인다. 이번 음악회는 국내 최정상급 성악가들과 함께 국군교향악단(지휘\_김홍식)이 연주를 맡았다. 신세계스퀘어 야외무대 앞에 마련된 800석의 좌석은 주말을 맞아 예술의전당을 방문한 가족단위 방문객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으며, 좌석을 확보하지 못한 방문객들이 계단광장 등 좌석 뒤편에서 공연을 관람하며 약 1,500여명의 인파가 한여름밤의 우리 가곡을 즐겼다. 이번 야외음악회를 통해 우리가곡이 독일의 리트와 러시아의 로망스, 이탈리아의 칸초네와 견주어 부족함이 없음을 청중에게 알렸으며 우리 국민들이 클래식 음악과 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 SCU





서울사이버대학교와 함께하는

# 2013 예술의전당 청소년음악회 '정치용 & 어메이징 오케스트라'



예술의전당 청소년음악회 '정치용 & 어메이징 오케스트라'가 지난 4월 20일 첫 공연을 시작으로 10월 5일 성황리에 마쳤다. 서울사이버대학교가 협찬한 이번 공연은 12월 7일까지 총 6번의 음악여행으로 펼쳐지며 매회 300명, 총 1,800명의 서울사이버대학교 학생들이 초청되고 있다.

\* 사진제공 | 예술의전당

'정치용 & 어메이징 오케스트라'는 음악의 본질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새로운 기획으로 새단장되어 청소년과 클래식 입문자들을 보다 재미있고 놀라운 클래식의 세계로 안내하였다. 특히 한국을 대표하는 지휘자 정치용이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의 지휘와 해설을 맡아 클래식 초보자의 음악 교사로 나섰다. 예술의전당 개관 25주년을 맞이하여 준비하는 '정치용 & 어메이징 오케스트라'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에 걸친 기획시리즈로 2013년 첫 해엔 '시대별 작곡가', 2014년 '국가별 작곡가', 2015년 '문학과 음악'으로 내용을 구분하여 음악의 본질적인 접근을 통해 클래식 음악의 실체를 확실히 보여주는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특히 자녀들과 공연을 관람한 학부모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휘자 정치용이 들려주는 해설과 공연에 푹 빠져 클래식에 관심을 갖고 공연장을 찾는 기회를 만드게 되었다고 한다. SCU



<http://multi.iscu.ac.kr/sangsang>



2009 서울사이버디자인대전 제2회 수상작 2008 서울사이버디자인대전 제1회 수상작 2010 서울사이버디자인대전 제3회 수상작

**응모분야**

**그래픽디자인 부문(Graphic Design)**

일러스트, 출판·편집디자인, 캐릭터디자인, 포스터 및 광고디자인, 설치물(옥외광고, POP 광고)디자인, 패키지 디자인, CI/BI 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 부문(Multimedia Design)**

Banner 및 인터넷 광고, UCC동영상 (2~4분의 동영상), 디지털사진, 웹 디자인, 애니메이션, 플래쉬캐릭터 등

**타이포그래피 부문(Typography)**

캘리그래피(손글씨) 등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타이포 디자인

**문의**

제6회 2013 서울사이버국제디자인대전 홈페이지 :

<http://multi.iscu.ac.kr/sangsang>

서울사이버대학교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홈페이지 :

<http://multi.iscu.ac.kr>

Tel : 02-944-5129(학과조교)

이메일 : 김동욱 조교(scoring1@iscu.ac.kr)

차명희 교수(princess@iscu.ac.kr)

이향아 교수(matilda@iscu.ac.kr)

제6회

2013 서울사이버 국제디자인대전

제6회 2013 서울사이버국제디자인대전은 '21세기형 컴퓨터그래픽 디자인 전문가 양성'이라는 학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디자인 감성과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 제작 기술을 교육하고 이를 심화하기 위한 개성화, 전문화, 다양화 추구의 학과발전을 전제로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자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 개최를 통하여 '창의성'으로 나타나는 확산적 사고와 융합력이 디자인 부문에서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례를 종합하여, 디자인적 발상연구에 기여하며 디자인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유도하고, 현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창의적이고 전문성을 겸비한 디자인리더'를 양성하고자 한다. 젊은 연령의 학생들에게 디자인에 대한 성취감과 자신감을 부여하여, 향후 창의적인 디자이너로서의 전망을 독려하고자 한다.

예선공모기간은 2013년 9월 23일(월)~11월 15일(금)까지이며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에서 12월24일(화)~12월30일(월)까지 전시된다.

응모분야는 그래픽디자인 부문, 멀티미디어디자인 부문, 타이포그래피 부문이며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http://multi.iscu.ac.kr/sangsang>)



제6회 서울사이버 국제디자인대전 수상자와 심사위원들



**작품주제**

**모바일 아이디어 부문**

스마트폰으로 구현 및 유통 가능한 서비스, 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게임 / SNS 서비스 / 마케팅 솔루션 등)

**모바일 영상 부문**

스마트폰으로 구현 및 확산 가능한 참신한 소재의 동영상 콘텐츠

**작품형식**

**모바일 아이디어 부문**

20페이지 이내의 아이디어 기획안

**모바일 영상 부문**

2~5분 이내 동영상 및 작품 설명서

**접수방법**

대회전용 홈페이지(<http://mcon.iscu.ac.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심사방식**

온라인 예선심사를 통해 총 20명(팀)의 본선 진출자 선발

제1회

2013 마이스터고·특성화고 모바일 아이디어 영상 공모전

2012년 선취업-후진학 특성화 학교로 선정된 뉴미디어콘텐츠공학교과가 주최하는 2013 제1회 마이스터고·특성화고 모바일 아이디어영상 공모전은 뉴미디어콘텐츠 분야 활성화와 미래적 분야 공모전을 통해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고교생 자긍심을 고취하고 콘텐츠 기획, 설계, 제작 분야의 우수한 인재 발굴을 위해 개최된다.

예선공모기간은 2013년 12월 2일(토)~31일(일)까지이며 본선대회는 2014년 1월 25일(토) 서울사이버대학교 차이코프스키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모전은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아이디어부문과 영상부문을 작품으로 공모받게 되는데 모바일 아이디어 부문은 스마트폰으로 구현 및 유통 가능한 서비스 또는 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이며, 모바일 영상부문은 스마트폰으로 구현 및 유통 가능한 참신한 소재의 동영상 콘텐츠를 <http://mcon.iscu.ac.k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20여 예선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여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게 되는데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특선, 특별상, 우수지도교사상을 시상하며 서울사이버대학교 뉴미디어콘텐츠공학교과에 입학 시 별도의 장학금을 받게 된다.

**공모전 홈페이지**

<http://mcon.iscu.ac.kr>

# 어르신 장수사진 무료촬영 SCU WAVE 봉사활동



우리 대학교가 창단한 재학생, 교직원 자율참여 'SCU WAVE 사회봉사단' 이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기부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 재학생, 교직원과 함께 저소득, 독거 어르신들 대상으로 장수 사진촬영 봉사 진행
- SCU WAVE 사회봉사단, 환경미화·재능기부 등 다양한 봉사를 통한 사회공헌에 앞장서

SCU WAVE 사회봉사단은 9월 27일 강북구 번3동 주민센터에서 저소득, 독거 노인들을 대상으로 장수, 건강 기원 사진 촬영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번3동 주민센터의 협조를 받아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서울사이버대학 재학생과 교직원 등이 참여해 주민센터에 방문하신 노인들에게 혜택을 제공했다. 최적의 사진 촬영을 위한 머리손질, 피부관리 등의 이미지 메이킹부터 촬영, 인화까지 모든 과정에 최선을 다하였다.

지난해 창단 이래 10회째 진행되는 봉사활동으로, 매분기마다 소규모 재학생, 교직원들이 모여 각종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 들어 서울역 환경미화, 한혈증 전달, 재능기부, 사랑의 장기기증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SCU WAVE 사회봉사단은 기존의 봉사동아리에서 한 단계 발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창단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의 교육이념을 기반으로 21세기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서의 덕목인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겠다는 목표다. 재학생과 교직원이 함께할 수 있는 봉사활동들을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는 것은 물론, 국제개발 NGO인 굿피플 인터네셔널과도 사회봉사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국내 뿐 아니라 해외봉사활동도 진행 중이다.

강인 총장은 "SCU WAVE 사회봉사단은 재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좋은 일에 앞장서고 있다." 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은 물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sup>SCU</sup>



장수사진 무료촬영 봉사활동 현장

# SCU 지역 및 산악회 연합 가을산행 SCU 아름다운 가을산행



지난 9월 28일, 마지막 토요일 SCU 선후배 학생들이 함께하는 가을산행이 있었다. SCU 아름다운 가을 산을 함께 걸으며 선후배 간의 화합과 유대를 돈독히 했다.

- 서울동부, 서울남부, 서울중서부, 경기동부, SCU산악회 연합

숨가쁘게 달려온 일상에서 맞이한 모처럼의 휴일.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기 위해 안락한 쇼파 대신 상쾌한 바람이 문어나는 가을 산을 선택한 서사인들이 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SCU 지역 및 산악회 연합에서 주최한 "SCU지역 및 산악회연합 가을산행"을 통해 청계산 산길을 동행했다. 가벼운 걸음으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가을 산의 정취에 흠뻑 빠져 있는 동안 산은 모두를 하나로 만들어 주었다.

지난 9월 28일 토요일, 청계산에서 SCU지역 및 산악회연합 가을산행이 있었다. 청계산은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등산 초보자들도 쉽게 오를 수 있고 시간 및 체력에 맞춰 등산 코스 난이도를 조절하기 좋아 수도권에 거주하는 등산객들에게 사랑받는 산이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이른 아침이었지만 가을 산의 정취를 느끼기 위한 등산객들로 붐볐다. 이번 산악회 연합에서 선택한 등산 코스는 원터골 입구에서 시작해 원터골 약속터, 옥녀봉 정상까지 점으로 전달해 능선, 원터골의 코스로 비교적 산세가 험하지 않고 경치가 아름다운 코스로 등산 초보자도 쉽게 도전할 수 있었다. 낮은 얼굴과 차가운 공기에 어색하던 기운은 몇 마디 인사가 오가고 가벼운 준비 운동을 하는 동안 화기에애하게 바뀌었다. 참가자 전원은 부드러운 산길을 오르며 나누는 일상의 소소한 대화와 모교 이야기로 힘든 줄 몰랐다. 또 단숨에 오른 정상에서 내려다 본 풍경은 색다른 감동을 주었다. 등산 후에는 식당에서 간단한 뒤풀이도 이어졌다. 등반대회에 참가한 한 학생은 "이번 산행을 통해 선후배간의 화합과 유대를 돈독히 하며 단합의 원동력을 얻은 것 같다. 한결같은 선배님들과 학우들의 참여와 협조로 가을산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하다."며 소감을 전했다. <sup>SCU</sup>



산행에 앞서 단체사진 촬영 모습



이 날 공연에는 이휘진 주시드니총영사,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이세웅 명예 이사장과 허묘연 부총장 등 주최측 인사들은 물론, 마리 바셔 NSW 주총독, 존 알렉산더 연방의원, 폴 그린, 찰스 카수스첼리 NSW 주의원, 데이빗 파머 호환재단 이사장 등 정부 인사 160여명, 미국, 캐나다, 중국, 이탈리아, 러시아 등 각국 총영사 27명을 포함한 시드니 주재 영사단 250여명, 문화계, 학계, 현지언론 인사 250여명, 한인 단체장 및 시드니 주재 지상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번 공연은 한호 문화교류에 한 획을 그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숙명여대 오케스트라 공연에 이어 프리마돈나앙상블 공연까지 이세웅 이사장의 숨은 노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이사장은 특히 1997년 창단한 프리마돈나앙상블이 IMF 여파로 해단의 위기에 처했을 때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며 국내는 물론 세계 최초의 프리마돈나로 결성된 합창단의 명맥을 잇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프리마돈나앙상블의 준비도 돋보였다. 현직 교수들로 구성돼 이번 공연을 위해 다른 바쁜 일정이 있음에도 두 달 이상 동안 심혈을 기울여 연습해 최고의 무대를 선사했다.

이동욱 문화원장은 “높은 수준의 공연으로 한국과 호주간의 문화적 교류를 지속할 수 있게 되어 뿌듯하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교민들께 감사하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교류의 교두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SCU



서울사이버대학교 후원

2013 프리마돈나 앙상블

오페라하우스에 울려 퍼진 '한국의 목소리'

2013년 8월 6일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인 이규도 단장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주요 음악대학 성악과 교수 및 강사들로 구성된 2013 프리마돈나 앙상블 합창 공연이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렸다. 이번 공연은 프리마돈나 앙상블과 호주 한국문화원이 주최하고, 서울사이버대학교와 호주 동아일보가 후원해 한국가곡, 민요, 오페라 아리아, 이태리 칸초네, 성가곡 등으로 구성해 공연되었다.

국내 여성 성악가 81명으로 이루어진 프리마돈나 앙상블(단장 소프라노 이규도)은 김덕기 지휘자와 함께 베르디, 오펜바흐, 로시니의 오페라 아리아와 한국 가곡 '가고파', '그리운 금강산', 한국 포크송 '벚노래', '아리 아리랑' 및 '오 솔레 미오', '산타 루치아' 등 일반인들의 귀에 익숙한 곡을 선보였다. 2200여명의 관객들은 프리마돈나앙상블이 선사하는 환상의 하모니에 감동해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 ① 숙명여자대학교 박인자 교수
- ② 서울사이버대학교 허묘연 부총장
- ③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세웅 이사장
- ④ 마리 바셔 NSW 주총독
- ⑤ 시드니 이휘진 총영사 내외
- ⑥ 주호주한국문화원 이동욱 원장
- ⑦ 프리마돈나 앙상블 단장 이규도 학장, 이세웅 이사장

# 그녀의 50년 간호 노하우, 말라위 의료의 희망으로

대양누가간호대학장으로 나눔 전하는 김수지 박사

글 | 정유진 기자(조선일보 공약섹션 '더 나은 미래')



한국 간호학계의 대모(代母)는 은퇴 직후 아프리카로 떠났다. 50년 간 쌓아온 간호 지식과 노하우를 아프리카 청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다. 국민의 평균 수명이 39세에 불과한 나라. 말라위(Malawi)에서는 하루에 160여 명의 임산부가 산후 처치를 받지 못해 죽어가고 있었다. 전문 교육을 받은 간호 인력이 시급했다. 질병 예방부터 응급 치료까지,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도 필요했다. '한국의 나이팅게일'로 불리는 김수지(71) 박사가 말라위의 '대양간호대학' 학장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이유다.

김 박사는 한국 간호학계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미국 보스턴대 대학원에서 한국인 최초로 간호학 박사학위(1978년)를 받은 그녀는 연세대, 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 대한간호학회장, 한국정신보건전문간호사회장, 서울사이버대총장 등을 역임했다. 2004년에는 이화여대 간호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서울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해 공부함으로써, 학생이 졸업 후 바로 총장이 되는 에피소드를 낳기도 했다. 수상 경력도 많다. 2001년 간호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국제간호대상을 받았고, 2007년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기장(記章)'을 공동 수상했다.

서울사이버대총장 임기를 마치고 잠시 숨을 돌릴 무렵, 말라위에서 의료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간호사 백영심(50)씨가 찾아왔다. 한국에서 간호대학을 졸업한 백씨는 20년 동안 말라위 의료 취약지역을 다니며 진료를 하고 2008년에는 180병상의 '대양누가병원'을 설립해 한 달에 2,500여명의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지난해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2회 이태석상'도 받았다. 빙구와무타리카 전 대통령의 간청으로 2010년 '대양간호대학'을 설립했지만, 대학 교육을 끌고 갈 전문가가 절실했던 것. 김 박사는 "백영심 간호사가 간곡히 도움을 청하면서(중략) 그때부터 3년째 함께 설 틈 없이 달리고 있다"며 미소를 지었다.

간호대학에 대한 말라위 청년들의 관심은 뜨거웠다. 30명을 선발하는데 무려 1,400명이 몰려왔다. 그만큼 간호 교육이 절실했다. "말라리아, 에이즈 등으로 가족과 친척을 잃은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교사로 일하던 36세 입학생은 에이즈로 일가친척 모두를 잃고, 간호사로 꿈을 바꿨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성적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지만, 지난 해까지는 학생 모두 전액 장학금을 받고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중략)"

말라위의 의료, 교육 환경은 생각보다 훨씬 더 열악했다. 체온계, 혈압기, 청진기 등 필수 의료기구들이 태부족하고 기본적인 장비조차 없어 말라위 최대 국립병원에선 하루에도 수많은 환자들이 죽어간다. 말라위는 1인당 국민소득이 370달러에 불과한 최빈국이다.

대양간호대학에는 19명의 교수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김 박사는 3년제로 설립됐던 간호대학을 4년 과정으로 바꾸고, 학생들이 인구의 85%가 살고 있는 부족 마을로 가서 환자를 돌보는 지역사회



01. 기관식에 앞서 나이팅게일 촛불을 받아 든 학생들의 진지한 모습  
02. 대양누가병원에서 임상실습 중 휴식 시간에 학생들의 모습  
03. 지역사회 보건소에서 체중을 측정하고 있는 모습

간호교육과 조산교육도 도입했다. 농사를 짓는 법과 적정기술도 가르친다. 졸업 후 마을로 돌아간 학생들이 주민들의 질병을 미리 예방하고, 건강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김 박사는 "현재 총 158개 마을 중에서 68곳의 보건소가 인력이 없어 텅 비어 있다"면서 "간호사가 된 학생들이 1차 의료기관인 보건소부터 3차 기관인 대학병원까지 곳곳에 퍼져나간다면, 1-2-3차로 연결되는 의료 시스템이 확립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전했다. 이를 위해 김 박사는 전자책, 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를 기반으로 공부하는 'e-learning'을 시도할 계획이다. <sup>SCU</sup>



태화  
샘솟는집  
정신 장애인 희망 클럽  
Since 1986



시설에 부착된 그래픽디자인을 설명 중인 (우측부터) 이석민 교수와 설명을 듣고 있는 이향아 교수, 이문숙 교수, 정상원 교수, 태화샘솟는집 배은미 부장



## 재능기부로 나눔을 실천하다

휴먼서비스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이문숙·정상원 교수,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이향아·이석민 교수

지난 7월 20일,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인 '태화샘솟는집'에서  
특별한 재능기부가 이루어졌다.  
서울사이버대학교의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교수들이 디자인한 로고를 시설 통유리에  
부착한 것. 이 날 로고가 인쇄된 시트지를  
붙이기 위해 모인 교수들과  
시설 관계자는 더 이상 장애우들이  
우리를 보지 못해 부딪히는 일은  
없을 거라며 흐뭇해했다.

글 | 편집부

'태화샘솟는집'은 휴먼서비스대학원 사회복지 실습기관이다. 건물이 통유리라 장애우들이 이를 보지 못하고 부딪히는 일이 잦아 직원들이 하얀색 펜으로 유리에 그림을 그려 놓긴 했지만 임시 방편에 불과했던 것이다. "도움을 주고 싶어 방법을 고심하던 정상원 교수는 이향아 교수에게 이를 털어 놓았고, 이 교수가 선뜻 도움을 자처했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의 교수들은 한가족 같습니다." | 이문숙 교수 |

이향아 교수는 실무 경력이 풍부한 이석민 교수에게 함께 할 것을 제안해 이향아 교수가 디렉팅을, 이석민 교수가 아트웍을 맡았다. 시설의 로고인 움트는 씨앗을 활용해 다양한 패턴을 만들고 색채에도 많은 신경을 썼다. "디자인의 아름다움 보다는 정신장애우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장애인 시설에 갖는 편견을 디자인으로 순화시켜 디자인을 통해 어떤 이로움을 줄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 이석민 교수 |

이번 일을 계기로 정상원 교수는 디자인이 사회복지 분야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했다고 한다. 또한 디자인을 통해 정신장애인들이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친숙한 존재이며 장애인 시설에 대한 편견을 견어내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입혀 주었다. "병원이거나 시설에 있으면 내가 뭔가 부족한 존재라고 느끼는데 따뜻하게 표현한 디자인이 이곳 장애우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게 되었어요. 도움을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정상원 교수 |

이 디자인은 앞으로 태화샘솟는집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상품들과 티셔츠 등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학과가 연계되어 교수들이 함께 재능기부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힘을 합치고 싶어요. 우리 학교엔 따뜻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 모두 기꺼이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 이향아 교수 |

서울사이버대학 교수들은 자신의 전문성을 살린 재능기부로 소외계층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SCU



60년이 넘게 한반도의  
안보와 안정에 기여하며  
함께 해왔던  
주한미군의 제2보병 사단장  
토마스 밴들(Thomas  
S. Vandal) 소장을  
권구순 교수(교양학부)가  
만났다.

## 해외명사 - 토마스 밴들(Thomas S. Vandal)을 만나다 한-미 간 동맹을 굳건히 하며 한반도의 안보에 기여

주한미군 제2사단장 소장 토마스 밴들(Thomas S. Vandal)



### 저희 대학을 방문해 주셨는데 어떤 인상을 받으셨나요?

건물이 참 현대적이면서도 새로 지은 듯 깨끗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라님을 위한 모든 인프라가 최신식이기엔 건물 자체가 온라인 교육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향해야 할 전반적인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 한국은 어떤가요? 변화하고 역동적인 것을 느끼실 수 있나요?

아주 역동적이면서도 현대화된 느낌이 듭니다. 90년대 초에 왔다가 다시 90년대 후반에 왔을 때를 비교해 보면 특히 서울은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미군은 이러한 변화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물론 한국이 스스로 일궈낸 성과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도 동맹으로서 이 자리에 함께 해 왔고 한국이 성공한 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안보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 사단장님의 세 아드님이 모두 장교로 군에 계실 정도로 군인가족이신데 어떤 계기로 군에 입문하게 된 건가요? 그리고 만약 군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어떤 분야의 일을 하셨을지 생각해 본적이 있으신지요?

웨스트포인트(미 육군사관학교)와 가까운 뉴욕에서 자랐는데 부친이 이따금 저를 웨스트포인트로 데려가셔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웨스트포인트에 입학하는 것을 꿈꿔 왔습니다. 군은 제가 생각했던 모든 것이었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팀워크, 전우애, 우리 조국에 중요한 임무에 대한 목적의식 등이 저로 하여금 군에 계속해서 몸담도록 한 거죠. 군에 오지 않았다면, 아마도 부친처럼 사업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군생활을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독일에서 미군훈련소장으로 재직 시, 과거 냉전시대에 소련의 일부였던 국가들의 군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하기 위해 훈련을 담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 적국이었던 불가리아, 루마니아, 조지아, 폴란드의 군관계자들과 함께 일하며 각 국가별 지휘관들과 유대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3사단 부사단장으로 이라크에 복무했던 2010년에 8명의 이라크 군장성들을 미국으로 보내 미군의 훈련체계에 대한 견학을 주선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 올해가 휴전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사단이나 한국주둔 미군에 특별한 행사가 있는지요?

휴전 60주년 기념식에 경기도지사님, 파주시장님과 더불어 관계자들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참전군인들을 뵈었는데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룬 모든 것이 한국과 미국의 동맹의 원년 멤버들이 이룬 토대를 기반으로 했으며 바로 우리들이 그들의 유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 전시작전권이 2015년을 기점으로 한국에 인계되는데 이후에도 북한의 물리적 위협에 대응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한반도의 어떠한 적의 위협도 억제하는데 조금도 실수가 없도록 하겠다는 2사단의 임무가 우리의 최우선입니다. 우리는 본부가 어디에 위치하는지와 무관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완수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미 간 동맹이 여전히 굳건하며 상호보완하여 전투를 효과적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 혹시 이라님을 통해 학습한 적이 있으신지요?

군에서는 두 가지 면에서 온라인교육을 강조합니다. 첫째는 병사들이 특정 군사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 훈련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바로 제가 이전에 참여했던 온라인 과정이었습니다. 둘째로 서울사이버대처럼 민간대학에서 제공하는 학위과정 프로그램인데 병사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많은 장병들이 온라인대학에 입학하여 수학과 있습니다. 장병들이 사정상 오프 위주의 수업에 출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주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렇다면 미군에 유명한 이라닝 프로그램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거의 6,700개의 공인된 온라인 프로그램이 있는데 연수센터의 담당자들이 수업등록 안내와 학사에서 박사학위까지 진로계획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2사단 장병들이 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메릴랜드대와 센트럴텍사스대, 트로이주립대, 그리고 미국의 최대 온라인대학인 피닉스대인데 용산과 동두천을 비롯한 각 예비부대 내 위성 학습실을 기반으로 온라인 수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위프로그램도 회계학, 경영학, 정보통신학, 사회복지, 교육학, 공학, 정보기술, 법학 등 다양합니다. 그리고 서울사이버대에도 많은 군인학생들이 재학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훈련이나 격오지(도시나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의 깊숙하고 외진 지역) 근무 같은 쉽지 않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만큼 학교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CU



# 배움에 노소(老小) 없다

상담심리학과 최보출 학우, 법무행정학과 한진희 학우

글 | 편집부

지난 '2012년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최고령, 최연소 졸업생이 나란히 학사모를 썼다. 나이를 초월해 배움의 길을 걸어온 상담심리학과 졸업생 7세 최보출 학우와 법무행정학과 졸업생 19세 한진희 학우가 그 주인공이다.

환갑을 넘긴 나이에 공부를 시작한 만학도 최보출 학우와 검정고시로 중·고교 과정 수료 후 15살에 대학생이 된 한진희 학우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다.

최 학우는 교회 상담실에서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가 좀 더 전문적인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 학교에 입학했다. 열정은 있었지만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다고 한다. 그때마다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은 이성태 교수 덕에 졸업할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최 학우는 학과 공부 덕에 상담 방식과 질이 달라진 점이 가장 기쁘다며 앞으로도 힘이 닿는 데까지 봉사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학우는 법조인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인생의 향로를 스스로 결정해 왔다. 법무행정학과에 입학해 학과 공부 뿐 아니라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학교에서의 모든 순간이 즐거웠다는 한 학우는 곧 대학원이나 로스쿨에 진학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진희 학생은 목표를 바로 세운 것 같아요. 손자 같은 학생이 참 대견합니다."(최 학우)  
"공부는 평생 하는 것이라지만 연세가 많아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정말 존경합니다."(한 학우)  
인터뷰를 위해 만난 두 학우는 할머니와 손자처럼 다정하게 서로를 격려했다. 그리고 여기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다시 새로운 출발점 앞에 선 두 학우의 앞날에 응원을 보낸다. SCU



최보출 학우



한진희 학우



# 글로벌 동문의 빛나는 졸업장

상담심리대학원 장인옥 원우

글 | 편집부

올해에 첫 석사 졸업생을 배출한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에는 해외 거주자가 있다. 바로 캐나다에 살고 있는 장인옥 원우다. 시차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 참석했던 화상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장 원우는 이번 '2012 후기 학위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해 멀리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날아왔다.

장인옥 원우는 캐나다 이민 1세대다. 평소 다른 이를 돕는 분야에 종사하고 싶었던 장 원우는 현지 대학에서 상담심리과정을 밟고 상담일을 시작했다. 장 원우가 주로 상담하는 이들은 부모를 따라 캐나다로 온 이민 1.5세대다. 장 원우는 불안과 우울에 시달리고 있는 이민 1.5세대를 상담하며 민족정체성과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그들의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장 원우의 논문은 '2012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석사 우수논문상을 받았다.

장 원우가 공부를 시작한 것은 자신의 일에 보다 전문성을 갖추고 싶었기 때문이다. 학교를 찾던 중 인터넷에서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에 석사과정이 개설됐다는 소식을 접했고, 1기로 입학해 공부를 시작했다.

"강의 내용이 정말 훌륭했습니다. 사이버대학임에도 아쉬움이 없었어요. 다양한 사례를 통한 현실감 넘치는 강의는 제가 하는 일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박사과정도 어서 개설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쁘게 지내다 보니 어느덧 졸업이 다가왔다는 장 원우는 자신의 맘과 노력이 고스란히 담긴 논문을 완성하게 된 것이 가장 기쁘다고 말했다. 그리고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이메일로 소통하며 많은 도움을 주신 김현아 지도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SCU





## 사제지간을 넘어 든든한 파트너로

부동산학과 **홍선관** 교수, 문화예술경영학과 **최진숙** 학우

‘사제삼세(師弟三世)’라는 말이 있다.

스승과 제자의 인연은 전세, 현세, 내세까지 이어진다는 뜻의 사자성어다. 서울사이버대학교를 통해 사제지간을 맺은 **홍선관 교수(부동산학과)**와 **최진숙 학우(문화예술경영학과)**는 그 인연을 계기로 특별한 경험을 했다. 바로 사제지간을 넘어 업무 파트너로서의 관계를 경험한 것이다. 짧지만 소중한 시간들의 이야기를 **홍 교수, 최 학우**를 만나 들어보았다.

글 | 편집부

**‘우리 학교 교수님, 강사로 모셔 볼까?’**

문화예술경영학과 **최진숙** 학우는 예술의 전당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26년차 베테랑이다. 여름예술학교를 준비하며 강사 섭외에 고심하던 **최** 학우는 학교 교수님을 강사로 모셔야겠다고 생각했다. 부동산학과의 **홍선관** 교수가 부동산개발은 물론 건축, 도시공학 분야의 전문가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제가 부동산학과는 아니지만 교수님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정말 다재 다능한 분이시죠. 교수님께 건축을 주제로 강의를 부탁드렸는데 처음엔 경험이 없다며 고사하셨어요. 하지만 아이들에게 교수님 같은 전문가를 만나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거듭 부탁드렸고 어렵게 허락을 받았습시다.” | **최 학우**

강의 섭외를 받아들인 **홍** 교수는 ‘어린이를 위한 건축이야기’를 주제로 5일 간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성인을 대상으로만 강의를 해온 터라 처음엔 막막했다고 한다. **홍** 교수는 아이들이 건축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마치 건축가가 된 듯 한 체험도 해볼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썼다.

**초보강사로 아이들과 함께 한 5일**

강의 첫날, **홍** 교수는 아이들에게 ‘건축가’라고 쓰인 이름표와 나비넥타이를 목에 걸어 주었다. 그리고 한 명은 건축가, 다른 한 명은 건축주가



홍 교수는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과 달리 눈높이를 맞춰 다가가는 것이 어려웠으나 강의 시간에 보여준 그림 하나, 모형 하나가 아이들의 머릿속에 남아 향후 진로를 결정할 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뿌듯함도 느꼈다고 한다.



되는 역할 놀이를 하도록 했다. 건축가가 되어 건축주의 요구에 맞게 설계도를 그려보는 체험을 하며 아이들은 자신이 진짜 건축가라도 된 듯 신나했다.

또 영화 속에 등장하는 유명한 건축물을 보여주고, 함께 예술의 전당 주요 건물들을 둘러보며 비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자신만의 드림하우스를 직접 설계하고 모형을 만들어 보는 수업도 진행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강의를 시작한 지 5분 만에 한눈을 파는 아이, 산만하게 움직이는 아이들이 있어서 진땀을 뺐던 것이다. 홍교수는 아이들이 전문적인 내용을 어려워한다는 걸 깨닫고 강의 계획을 대폭 수정했다. 머릿속에 있는 걸 그대로 끄집어 내 만드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을 위해 체험 위주의 수업으로 방향을 바꾸고, 가르치는 방식에도 변화를 주었다.



“도면을 그리려면 ‘축척’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아이들에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더군요. 그래서 아이들 사진을 찍어 작은 종이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형으로 축척을 이해시키고 집과 가구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 홍 교수 |

5일 간의 강의를 끝낸 소감을 묻자 홍 교수는 ‘쉽지 않았다’고 미소 지었다.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과 달리 눈높이를 맞춰 다가가는 것이 어려웠던 것이다. 그러나 강의 시간에 보여준 그림 하나, 모형 하나가 아이들의 머릿속에 남아 향후 진로를 결정할 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뿌듯함도 느꼈다고 한다.

#### 초보강사로 아이들과 함께 한 5일

홍 교수와 함께 한 여름예술학교는 최 학우에게도 많은 것을 느끼게 했다. 앞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때 아이들에게 홍 교수와 같은 전문가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또 만들어 봐야겠다는 것,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강의를 부탁드릴 분을 학교 내에서 찾아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일반 대학은 비슷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공부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는 골고루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학생들도 많지요. 그러다 보니 학생과 교수가 단순한 사제 지간을 넘어 함께 어우러져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제가 서울사이버대학교에 안 왔다면 홍 교수님을 강사로 모시지 못했을 거예요.” | 최 학우 |

최 학우의 말에 홍 교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사제지간이었던 관계가 업무 파트너십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이 홍 교수에게도 특별하게 다가왔다고 한다.

“학교에선 교수라는 생각에 왠지 무게를 잡아야할 것 같았는데 여기서는 초보 강사일 뿐이더군요. 제가 같은 학교 교수다 보니 최 학우가 신경을 참 많이 써줬어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에너지 넘치는 최 학우 덕에 저도 힘이 났고, 잠깐이지만 아이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즐거운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 홍 교수 |

단순하게 공부를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를 넘어 또 다른 가치를 만들어냈던 시간. 서울사이버대학교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입을 모은 홍 교수와 최 학우는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자주 있으면 좋겠다며 활짝 웃었다. SCU



# 대학원 생활의 든든한 길라잡이 '오프라인 스터디'

상담심리대학원의 자발적 스터디 모임 '정신병리연구회'



지난 9월 21일 토요일, 추석 연휴 기간임에도 16명의 상담심리대학원생들이 '정신병리연구회' 모임에 참석했다. 발표자 김수영 원우가 책 속 임상사례를 소개하고 이우경 교수가 코멘트를 덧붙이며 스터디가 진행됐다. 열일 제쳐두고 달려온 학생들의 얼굴엔 배움을 향한 열의가 가득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엔 남다른 자랑거리가 있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스터디 모임 '정신병리연구회'가 바로 그것이다. 스터디는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열리며, 함께 공부하고 개별 임상사례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글 | 편집부



정신병리연구회는 2011년 이 교수가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 6명과 함께 <임상심리스터디>를 하면서 시작됐다. 이 교수는 학생들이 오프라인 스터디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많음을 알고 모임을 '정신병리연구회'라 이름 짓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과 스터디를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3년째 20명 내외의 학생들이 매달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세 시간 이상 스터디를 하다보면 힘들 때도 있지만 우리 대학원생들이 너무나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학생들에게서 에너지를 받습니다. 스터디는 제가 재미있고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저도 대학원 석사, 박사 공부를 할 때 수업 외에 동료 학생들과 같이 여러 가지 스터디를 하면서 많이 느끼고 배웠던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을 우리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 이 교수 |

### 함께 공부하고 격려하는 문화를 만든다

심리학은 직접 사람을 만나고 사례를 많이 경험해야 하는 일이다. 정신병리연구회 학생들은 매달 모여 같이 책도 읽고, 심리 검사를 해보기도 하고, 실제 임상사례를 나누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운다.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수를 정서적인 끈으로 연결해서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받으며 선후배 간에도 친밀함과 서로 이끌어주는 문화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 선후배간 교류의 장이 되고 있는 '정신병리연구회'

상담심리대학원 2기생이자 정신병리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수영 원우는 현직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바쁜 시간을 쪼개어 매달 스터디 모임에 나오고

있는데 한결 같이 스터디를 이끌어주고 있는 이 교수에게 깊은 감사를 느낀다고 했다. 김 원우와 학생들은 매번 1-2시간 일찍 만나 온라인으로 학습하며 느끼는 어려운 점을 서로 나누고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갖는다.

이 교수는 현재 상담심리사, 임상심리사 등 관련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는 대학원생들을 위해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수퍼비전과 실습을 도움 계획도 세우고 있다.

### 서로 자극을 주고받는 학생과 교수

토요일까지 자발적으로 오프 스터디에 참석하는 상담심리대학원생들은 열성적이고 주도적으로 학업에 임한다.

"추석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참석을 했더군요. 심지어 제주도에서 학생도 스터디를 하러 온 것을 보니 이번 달 빼먹지 않고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 교수 |

### 가르침으로 성장하고, 배움으로 진보하다

온라인으로 혼자 공부하다 보면 외롭기도 하고 다른 우선 순위에서 밀려 학업이 뒷전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온라인수업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만나 같이 스터디하고 교류를 쌓다보면 공동체 의식도 생기고 학습 의욕도 고취되고 학업 지속 동기도 강해진다고 한다. 그래서 이 교수는 사정상 휴학을 한 지도학생들에게 스터디 모임에는 참석할 것을 당부하고 있어서 실제 휴학 중임에도 매달 모임에 참석하며 학업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있는 학생들도 있다.

온라인의 한계를 넘어 오프라인까지 학업과 교류의 장을 넓혀주는 이 교수와 학생들, 그들은 '교학상장(敎學相長)'이란 사자성어처럼 스승은 학생을 가르침으로써 성장하고 제자는 배움으로써 진보하고 있다. SCU



유정미 멘토

무덤고 지난하던 여름이 가고  
파란 하늘과 시원한 바람에  
마음까지 들뜨는 계절,  
가을이 왔다.  
이 좋은 가을의 정취를  
즐기기 위해 서울사이버대학교  
가족상담학과 학우 7인방이 뭉쳤다.  
바로 '파란나라' 라는 이름으로  
인연을 맺은 멘토링 그룹  
멤버들이다.  
동화나라처럼 아름다운  
헤이리에서의 시간 속에서,  
'파란나라' 사람들의 마음은  
어느새 동심으로  
파랗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글 | 편집부

## 헤이리마을 도자기체험 '파란나라' 를 보았니? 열정과 사랑이 가득한!

### 하얀 도자기 위에 나만의 이야기를 담다

이번 행복문화체험의 주인공은 서울사이버대학교 가족상담학과 멘토링 그룹 '파란나라'. 총 10명의 그룹원들 중 7명이 가을 나들이 길에 올랐다. 유정미 멘토(2학년)를 필두로 김화자(3학년), 안선희(1학년), 채미화(1학년), 한승희(3학년), 채지나(1학년), 조미연(1학년) 멘토가 참여한 가운데, 채미화 멘토의 두 자녀와 유정미 멘토의 남편도 체험에 동행했다. 그룹원 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스스럼없이 어울리는 분위기에서 '파란나라'의 소통 지향적 성향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유정미 멘토의 남편인 김병준 학우는 같은 가족상담학과 학생으로, '파란나라'의 내면치유프로그램을 도맡아 진행하는 등 아내의 멘토링 그룹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파란나라'라는 그룹명은 멘토링 그룹이 결성된 지난 3월에 지어진 이름이다. 동요에서 상징하는 그대로 희망적이고 밝은 모임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유정미 멘토는 "저희 학교에는 늦게 공부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만큼 어려움이 와도 좌절하지 말고 목표를 이루자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라며 숨은 의미를 설명한다.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도자기 만들기의 첫 단계는 물레 성형. 도자기의 틀을 만드는 과정인 물레 성형은, 혼자 힘으로 하려면 최소 2개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때문에 이날 체험에서는 강사의 도움으로 물레 성형의 맛보기만 경험한 후, 초별구이된 도자기에 핸드페인팅을 하는 순서로 넘어갔다.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새하얀 머그컵과 접시 위에 각자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리는 시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체험임에도, 막상 붓을 잡자 손이 쉬이 움직여지지 않는다.

"붓을 잡아보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뭘 그려야 하는 거야?"

"역시 창작은 어렵네요."

순백의 도자기 앞에서 그룹원들은 난감한 기색이 역력하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하나 둘씩 자신만의 밑그림을 그리고 색을 칠하는 작업에 몰두하기 시작한다. 한참을 그렇게 흰 도자기와의 사투를 벌인 끝에, 개성만점 도자기 작품들이 하나둘씩 완성되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행복한 가족의 얼굴을, 어떤 이는 자신의 미래 모습을, 어떤 이는 좌우명을 가득 새겼다. 하얀 도자기 위에 하나하나 자신의 생각대로 그림을 그려간 이 과정은, 인생의 여정과도 꼭 닮았다. 두려움을 떨치고 과감하게 그림을 그려갈 때 나만의 의미 있는 작품이 완성되듯이, 인생 역시 그려할 것이다.

####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되어

‘파란나라’의 멘토와 멘티들은 이미 인생이라는 도자기 위에 자신만의 그림을 멋지게 그려나가고 있다. “자발적으로 학업의 길을 다시 선택한 사람들이다보니, 기본적으로 열정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래서 더 쉽게 가까워질 수 있었죠. 관계에서도, 공부에서도 열정만큼 중요한 요소가 없는 것 같아요.”

2학기에 ‘파란나라’ 신입회원이 된 김화자 멘티의 말처럼 각자의 이유로 다시 학업의 길을 선택한 그들은, 그래서 매순간이 더욱 절실하고 뜨겁다.

‘파란나라’ 멘토링 그룹은 친목보다는 내면치유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치유하고 이를 학업의 연장선상으로 이어가는 모임을 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통해 속 깊은 이야기를 많이 나누다보니, 끈끈하고 친근한 관계는 자연스럽게 형성된다고. 이처럼 알차고 생산적인 모임의 중심에는 유정미 멘토가 있다.

“유정미 멘토는 늘 열정적이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세요. 저희도 자연스럽게 그 열정을 따라가게 되죠.”

“저희 멘토님은 자신의 실수를 잘 인정하고 멘티들에게도 스스로없이 조언을 구하세요. 그런 모습이 감동이었어요.”

이어지는 멘티들의 칭찬 릴레이에 유정미 멘토는 “멘토링 프로그램이 끝나도 우리 멘티들은 언제까지나 나의 첫사랑으로 남을 것”이라며 애정을 드러낸다.



가족상담학과라는 학과의 특성상, 그룹원들은 온·오프라인으로 서로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많이 가진다고 한다. 사소한 일상의 고민부터 깊은 상처까지, 서로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는 과정을 통해 그룹원들은 결국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게 된다. 그래서 ‘파란나라’ 멘토·멘티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같은 존재들이다.

“서사대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나의 거울 같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멘토링 프로그램이 끝나도 서로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충전소 같은 모임으로 이어질 거라고 믿어요.”

꿈과 사랑이 가득한 동화 속의 파란나라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닐테다. 상처와 고민을 직면하고 그 속에서 얻는 치유의 길 끝에 ‘파란나라’가 있음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다. 고난을 딛고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그 ‘파란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가족상담학과 학우들의 내일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SCU

## 〈진짜 사나이〉로 만나는 군대 이야기

남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군대이야기가  
여성들에게는 낯설음,  
예비역 남성들에게는 향수,  
그리고 어머니들에게는  
모성을 자극하는 절묘하게 혼재된  
감성 코드로 모두의 공감대를  
만들어 가고 있다.



“여자들은 알지 못한다고 미지의 세계로 덮어 놓았던 군대가 이제 예능을 통해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한 공감과 재미를 넘어 그 땀과 눈물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한번쯤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글 | 이정원 교수(군경상담학과)

최근 군대를 무대로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에게 많은 관심과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남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군대이야기가 여성들에게는 낯설음, 예비역 남성들에게는 향수, 그리고 어머니들에게는 모성을 자극하는 절묘하게 혼재된 감성 코드로 모두의 공감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한번 거쳐 가는 군대. 그곳은 바로 내 아들, 내 남자친구가 나와 떨어져 2년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기도 하고 직업군인과 그 가족들에게는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사실 병사들에게는 군에 입대하는 것부터가 스트레스일 것입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군 조직에 편입되면서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외부와의 격리, 사발 수준의 짧은 머리, '다'나 '까'로 통칭되는 군대 언어의 숙달, 여러 가지 분야의 반복되는 훈련 등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생소한 사건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힘들어 하는 병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군에 대한 이미지는 과대하게 부풀려지기도 하고 대중들에게 다소 부정적으로 비쳐지기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연예인들이 실제 군대에 입대하여 현역병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려내는 TV 프로그램 〈진짜 사나이〉에서는 포사격 훈련이나 수색대 훈련, 화생방 훈련 과정에서 얼차려도 받고 땀과 눈물

도 흘리는 리얼리티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반가웠던 프로그램은 이기자 부대 편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저의 특강 중 만났던 여군들도 보았고 '이기자!!' 하고 외치는 익숙한 구호를 들으면서 뭔가 가슴 한쪽이 뭉클해지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진짜사나이를 재밌게 보는 20~30대 여성들은 그 땀과 눈물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진짜 군인들의 땀의 의미도 알게 되면 그저 동생이나 남자 친구가 통과의례로 갔다 오는 것으로만 생각하던 군대가 아니라 〈진짜 사나이〉의 재미 안에는 그들이 힘들게 고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안보 상황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하듯이 현실에서의 모든 전환들은 상실과 변화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군에서 경험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전환 과정에서 사람들은 개인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되고 잠시 동안 주류에서 벗어났다 다시 되돌아오는 하나의 여행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군대는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 연결고리로서의 전환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여자들은 알지 못한다고 미지의 세계로 덮어 놓았던 군대가 이제 예능을 통해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한 공감과 재미를 넘어 그 땀과 눈물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SCU



27사단에 방문해 특강 중인 이정원 교수

# 스마트폰에 인생의 열쇠가 있다!

글 | 이종구 (SNS소통연구소 소장 <http://urisesang.com>)



스마트폰 3,700만 명 시대!  
 유형의 상품이든 무형의 상품이든  
 1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면  
 Fashion(패션)이고, 5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면 Trend(트렌드)이고,  
 1,0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면  
 Culture(문화)라고 한다.  
 이제 스마트폰이나 SNS도구  
 활용은 문화로 자리 잡았기에  
 제대로 배우고 익혀서 활용하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CamsScanner**라는 스마트폰 앱은 중요한 문서를 언제 어디서나 스캔해서 바로 전송할 수 있어 Paperless 문화를 만들 수 있고, **Evernote** 앱은 책이나 중요한 서류의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저장하면 이미지를 텍스트로 인식해 주기 때문에 방대한 자료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Evernote의 기능 중에 **Clearly**는 신문이나 중요한 기사들을 수집할 때 주변 광고나 연관 없는 정보들은 화면에서 보이지 않게 해주고 원하는 내용만 보여주고 출력까지 가능하게 해준다. 사용 방법은 <http://chrome.google.com/webstore>에서 'Clearly'를 검색하고 확장프로그램에서 다운로드 사용할 수 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수집하려면 네이버에서 '**위키피디아 한국**'을 검색하면 쉽게 고급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전 세계 네티즌들이 만들어 가는 백과사전으로 전문적인 정보까지 총망라하고 있다. 스마트폰에서도 위키피디아를 이용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이동 중에도 이용할 수 있다. (앱-위키백과)

또한,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생방송 촬영을 할 수 있는 **유스트림(Ustream)** 앱을 활용해 스마트폰과 웹에서 서로의 상황을 동시에 보면서 일을 진행할 수 있다.

학교 강의뿐만 아니라 이동 중에도 우리나라 유명강사의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앱 '세바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의 강의를 듣고 자신이 원하는 외국어 어학공부도 할 수 있는 앱 '**TED**' or '**TED Air**' 등 다양한 명강의 앱들이 존재한다.

흔히들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많이 검색하는데 '**Youtube**' 검색 창에 자신이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정보들을 입력하면 동영상으로 제작된 정보들을 쉽고 편리하게 볼 수 있다.

많은 번역 사이트들 중에는 구글 크롬 웹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pig**'를 추천한다. <http://chrome.google.com/webstore>에서 검색 창에 'pig'라고 입력하고 확장프로그램에서 다운로드한다. 'pig' 메뉴에서 '기타 유용한 도구들'을 클릭한 후 '웹페이지 번역'을 클릭하면 자신이 원하는

스마트폰,  
 스마트하게 활용하고 성공을 즐긴다!

는 외국어로 문서들이 번역된다. 영어교육 사이트 **BBC Learning English**는 BBC UK, BBC 영국에서 서비스하는 영어공부 웹사이트이다. 회원가입이 필요 없고 비디오, MP3, 스크립트를 통한 영어공부가 가능하며 영국식 영어 듣기, 말하기를 마스터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아리랑라디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국내 최초의 영어 라디오 방송인데 뉴스, 생활정보, 교통, 날씨 등 생생한 실생활 정보와 함께 라디오 프로그램, 국악, 대중가요, 팝, 월드뮤직을 24시간 제공해 다양한 한국의 문화를 소재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특히 어학 초보자들에게 도움이 된다.

외국어 공부시 반복 조작방식의 단점을 보완한 스마트폰 앱 '**WaveLoop**'는 매우 유용한 구간반복 앱이다. 주요 기능으로는 1.문장 범위 자동 추출, 2.파형 스크롤을 이용한 직관적 오디오 탐색기능 3.이전문장, 다음문장으로 이동, 4.문장 구간반복 및 구간반복 옵션 5.재생 속도 조절, 6.문장 즐겨찾기 및 메모기능들이 있다.

이외에도 네이버에서 만든 '**글로벌회화**' 앱, 구글에서 만든 '구글번역' 앱,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만든 '**지니톡**' 앱까지 잘 활용한다면 외국인을 만났을 때 겁 없이 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자 공부 앱으로는 '**한자공부Q**'가 쉽고 편리하다. 한자공부Q는 27,000여 자의 한자를 공부할 수 있는 무료 한자 옥편 앱이다. 10만여 개의 한자 단어를 검색하고 연관 단어들도 제공하며 한자 쓰기까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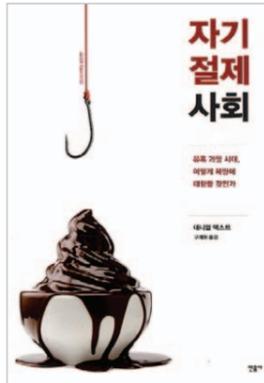
중국어를 처음 하는 사람 중에 기본 성조가 공부된 학생이라면 중국어 앱 '**이얼싼 중국어**'가 유용하다. '이얼싼 중국어' 앱은 생활 중국어, 여행 중국어, 비즈니스 중국어에 필요한 다양한 문장들을 제공한다. 기초부터 심화까지 탄탄하게 다질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스마트폰 앱 검색창에 'HSK' 검색하면 무료버전의 다양한 중국어 'HSK' 앱이 나오는데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서 사용하면 된다.

SCU

# Book

## 자기 절제 사회

유혹 과잉 시대 어떻게 욕망에 대항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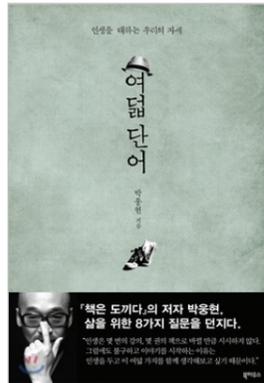


산업화 이후 치명적인 유혹들이 하나 둘 우리를 에워싸기 시작했다. 기술혁신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는 사회를 건설했고, 개인 주의의 확산은 각종 사회적 제약들을 없애 버렸다. 그 결과 인간은 종천연색 유혹이 위협하는 세상에 알맞은 의지 하나만을 걸친 채 맨몸으로 버려지게 되었다. 인간은 욕망에 저항하도록 진화하지도 않았고, 자유의지가 존재하는지조차 불확실하다. 저자는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 오늘날의 유혹 과잉 상황을 진단할 뿐 아니라 그에 맞설 다양한 전략들을 제시하며 자기 절제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다.

다니엘 액스트 지음 | 구계원 옮김 | 민음사

## 여덟 단어

인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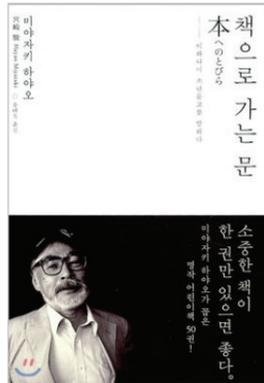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번쯤 마주쳤을 여덟 가지 가치에 대해 저자 자신의 경험과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함께 생각하는 책이다. 왜 삶의 기준을 내 안에 두어야 하는지, 고전 작품을 왜 궁금해 해야 하는지, 동의되지 않는 권위에 굴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고민들을 책과 그림, 음악, 그리고 그가 만난 사람들을 통해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핀다. 저자는 모든 선택에는 정답과 오답이 공존하며 자신의 판단을 믿고 가라고 조언한다. 우리 인생은 몇 번의 강외와 몇 권의 책으로 바뀔 만큼 시시하지 않으며, 스스로 깨닫고 점차 자신의 방식대로 수행하기를 권한다.

박웅현 지음 | 북하우스

## 책으로 가는 문

자신만의 한 권의 책을 만나라



일본 애니메이션의 대부 미야자키 하야오가 세계 명작 50권을 가려 뽑아 소개한 책이다. 이 책은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즐겨 읽을 수 있는 순수한 이야기 목록을 제공한다. 특히 저자는 자신의 독서체험과 사연을 더해 진정한 책 읽는 재미를 알려주고 있으며, 애니메이션 감독임에도 명작은 글로 읽지 않으면 그 재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책으로 먼저 만나기를 당부하고 있다. 유행에 휩쓸리거나 남들을 그저 따라 읽는 것이 아닌 자신만의 책을 만나도록 안내한다.

미야자키 하야오 지음 | 송태욱 옮김 | 현암사

# Musical

## 노트르담 드 파리

1998년 프랑스 파리 초연 이후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 이상 관람한 프랑스 대표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가 4년 만에 한국어 공연으로 돌아온다. 프랑스의 전설적인 극작가 플라몽동과 유럽의 대표적인 싱어송라이터 코치인테 등 세계 최고의 예술가들이 만들어 낸 <노트르담 드 파리>는 1,200만 장의 경이적인 OST판매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노트르담 대성당을 상징하는 대형 무대세트(길이20m, 높이10m)와 100kg이 넘는 대형 종들, 감옥을 상징하는 쇠창살, 움직이는 기둥과 가고일 석상 등 30톤이 넘는 세트와 무대미술까지 남다른 스케일과 예술성을 자랑한다.

기간 : 2013. 9. 27 ~ 11.17 | 장소 : 블루스퀘어 삼성전자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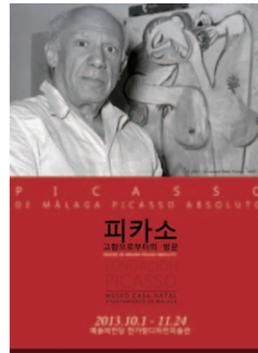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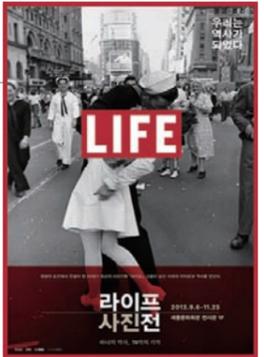
# Exhibition

## '하나의 역사, 70억의 기억' 라이프(LIFE)사진전

20세기 최고의 기록 라이프로 손꼽히는 <라이프사진전>이 한국에서 열린다. '하나의 역사, 70억의 기억'이라는 부제 단 이번 <라이프 사진전>에는 9백만 장의 오리지널 필름에서 선택된 약 140점이 선보인다.

사진전은 '인간 vs 인간(People)', '역사에 기억될 순간(Moments)', '이것이 우리의 삶(It's life)',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입맞춤의 시간(Kiss the life)'로 총 4가지 코너로 구성돼 있다.

기간 : 2013. 9. 6 ~ 11. 25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전시관층



## 피카소 고향으로부터의 방문

피카소재단 설립 25주년 기념 사업인 이 순회전을 통해, 재단의 주요 소장품들이 아시아에 최초로 공개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피카소가 태어난 말라가의 19세기 풍경과 그의 생가의 모습, 잘 알려지지 않은 어렸을 때의 가족사진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그의 개인적인 풍경이 담긴 귀중한 사진들인 피카소의 친구이자 스페인 왕립 사진작가 후안 히에네스(Juan Gyenes)가 남긴 '영원한 불꽃, 피카소' 사진들이 함께한다.

기간 : 2013. 10. 1 ~ 11. 24 | 장소 : 예술의전당한가람디자인미술관

# Puzzle

①		④		⑦	
②					
			⑧		⑨
③		⑤			
				⑩	
⑥					

### 가로

- ② 영국의 고전파 경제학의 시조인 애덤 스미스가 1776년에 발간한 현대 경제학의 대표적인 이론서
- ③ 차(茶)와 말을 교역하던 중국의 높고 험준한 옛길.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교역로
- ⑥ 언어, 문학, 역사, 철학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
- ⑦ 국제 축구 연맹 또는 지진파의 하나. 파동의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동일
- ⑧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
- ⑩ 사물의 가치를 깨달아 통함

### 세로

- ① 새로운 빙하기, 인류 마지막 생존지역인 얼차인의 부의 균형과 분배에 대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 ④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각각 의견을 말하며 논의함
- ⑤ 유물과 유적을 통하여 옛 인류의 생활, 문화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
- ⑦ 이탈리아 중부에 있는 도시, 중세 말부터 16세기 초에 번영한 공화제 도시 국가
- ⑧ 올바른 길. 또는 정당한 도리
- ⑨ 사물의 규모나 세력 따위가 커지면서 생기는 고통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⑩ 일정한 지역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

➔ 정답자 10명에게는 문화상품권(만원권)을 제공합니다. 정답은 서울사이버대학교 홈페이지(홈-대학생활-이벤트)로 들어가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소식

### 서울사이버대 UNAI 가입



서울사이버대가 유엔이 주도하는 전 세계 고등교육기관의 사회적 책임 협의체인 유엔아카데미임팩트(UNAI) 회원대학에 가입했다. 이번 UNAI 가입을 통해 유엔 3대 과제인 평화, 개발, 인권신장 실현을 기초로, 개도국 빈곤과 교육기회 불명등 해소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권용해 교수와 함께하는 SCU 일류특강 진행



지난 7월 31일 재학생 및 예비 입학생, 일반인 대상으로 '한류열풍과 프랑스 대학생들에게 비춰진 한국 이미지의 변화'라는 주제로 'SCU 일류특강'을 진행했다. 프랑스 라로셀대학 한국어학과 교수로 재직중인 권용해 교수는 강연에서 프랑스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한류열풍과 새롭게 인식되어 가는 우리나라의 이미지에 대해서 알렸다.

### 한국디지털디자인협 '국제특별초대전' 성황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차명희 교수는 지난 8월 1일~8일까지 한국디지털디자인협회가 주최하는 <뉴욕 SVA 국제특별초대전 / 국제디자인학술대회 2013 (SVA)>에 참여해 동양의 철학적 디자인 사고를 접목하는 세계적인 디자인 학자인 미국의 Richard Wilde, Bruce Wands의 명강연과 함께 지구촌의 디자인 Insight를 공유하며, 한국의 디자인학을 세계에 알리고 소통,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 국방대학교 총장 일행 내방



지난 8월 13일 국방대학교 박삼득 총장(육군 중장) 일행이 본교를 방문하여 이라닝 관련 협력을 논의하였다. 지난 2007년 본교와 학술교류 협력 협정을 체결한 국방대는 매년 상호 방문을 통하여 교류해 오고 있다.

###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이라닝 시찰단 본교 방문



사우디 카심(Quassim)대학 파이잘(Faisal)부총장을 대표로 사우디의 교육부와 공군 원격교육 관계자들로 구성된 이라닝 시찰단이 지난 8월 21일 본교를 견학 방문하였다. 시찰단은 서울사이버대의 이라닝 운영노하우와 콘텐츠 개발체계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향후 협력관계를 위한 논의를 하기로 하였다.

### 2013학년도 2학기 멘토링 결연식



지난 8월 24일 본교 A동 5층 스튜디오에서 2013학년도 2학기 멘토링 결연식이 있었다. 이날 멘토 68명과 멘티 258명 총 326명이 최종적으로 매칭되었으며, 이번 한 학기 동안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효율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세네갈 교육부 장관 방문



지난 8월 29일 세네갈 고등교육부 장관 및 대표단이 벤치마킹을 위해 본교를 방문했다. 마리 투 니아네 세네갈 고등교육부 장관은 이날 서울사이버대의 운영노하우를 벤치마킹하고 과학기술 연구개발센터 설립을 협의했다. 또한 이라닝 시스템(SCU Learning Wave) 기술발전 연수와 컨설팅 협조도 서울사이버대학교에 요청했다. 강인 총장은 '향후 이라닝 시스템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 해 이라닝 개도국에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가족상담학과 엄정희 교수, C채널 '힐링토크-회복'에 출연



지난 9월 2일 가족상담학과 엄정희 교수는 최일도 목사가 진행하는 C채널 '힐링토크-회복(68회)'에 출연하여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이날 방송에서 엄 교수는 '40여 년간 부부가 행복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랑의 기술' 등 중년 부부들의 행복한 노후를 역설했다. C채널 홈페이지와 유튜브 및 Daum 등 인터넷을 통해 재시청할 수 있다.

### '컴퓨터활용 왕초보 무료특강' 실시



2013학년도 하반기 신·편입생을 대상으로 9월 2일 '컴퓨터활용 무료특강'을 실시하였다. 2학기 수업 시작을 앞두고 평소 컴퓨터활용에 자신이 없어 학습활동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본 특강은 학점취득과 관계없는 Off-Line 무료특강으로 진행되었다.

### 사랑의장기증운동본부와 협약체결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지난 9월 9일 (재)사랑의장기증운동본부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사랑의 장기증 공동 캠페인을 벌이고, 나눔의 실천이라는 기준아래 아름다운 사회 구현의 뜻을 밝혔으며, 사랑의장기증운동본부의 임직원에게 위탁교육을 제공하게 되었다.

### 주한미군 제2사단장 소장 '토마스 밴들' 본교 방문



지난 9월 9일 주한미군 제2사단장 토마스 밴들 소장과 일행이 본교를 견학 방문하였다.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이라닝 운영 노하우와 콘텐츠 개발체계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향후 협력관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 SCU WAVE 사회봉사단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



서울사이버대학교 WAVE 사회봉사단은 지난 10월 15일 농번기를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가졌다. 경기도 연천 새동지 마을에서 이루어진 이번 행사는 농작물 수확 및 농촌 봉사활동을 통해 형식적인 봉사활동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농민들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보람되고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 SCU 학과 학습사례 수기 공모전



서울사이버대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내 인생이 달라졌다> 학과 전공학습사례 수기 공모전을 10월 28일까지 개최한다.(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 학교소식

### 서사인 등반대회 개최



서울사이버대학교는 10월 26일 총동문화 주최로 남산에서 서사인 등반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등반활동을 통해 동문간의 화합과 유대를 돈독히 함으로서 모교에 대한 자부심과 애교심, 동문 사랑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 제2회 총동문화장배 서울사이버대학교 골프대회



오는 11월 14일 신라CC에서 제2회 서사인 골프대회가 열린다. 골프 축제를 통해 SCUAA의 단합과 SCU 자금심 고취, SCUAA의 비전, 참여의 모교 사랑과 협력의 동문 사랑을 실천하고자 한다. 총동문화와 SCU골프동호회가 함께하며 서울사이버대 가족이라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신청은 10월 26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다.(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 교수동정



#### 김동환 교수, 부동산 관련 논문 게재

부동산학과 김동환 교수는, 2013년 7월 (사)한국주거환경학회 학술지에 논문 「오피스빌딩 중대형 오피스빌딩 임차인의 B2B 임대차계약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를, 2013년 8월 한국부동산연구원 학술지에 논문 「중대형 오피스빌딩의 B2B 서비스품질이 성과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게재하였다.



#### 김영민 교수, 녹색물류 관련 논문 게재

국제무역물류학과 김영민 교수는, 2013년 6월 한국국제상학회 학술지에 논문 「녹색물류기업 인증제도의 기대성과에 관한 연구 - 물류기업 특성별 녹색물류성과 차이 분석」을 게재하였다.



#### 김용희 교수, 국토 지가구조 관련 논문 게재

부동산학과 김용희 교수는, 2013년 8월 한국부동산학회 학술지에 논문 「국토 지가구조의 동태적 변화측정에 관한 연구」를 게재하였다.



#### 김윤나 교수, 북한이탈청소년 관련 논문 게재

사회복지학과 김윤나 교수는, 2013년 6월 한국소년정책학회 학술지에 논문 「북한이탈청소년의 문화적응 관련 분석」을 게재하였다.



#### 김지연 교수, 온라인 게임 관련 논문 게재

상담심리학과 김지연 교수는, 2013년 8월 한국게임학회 학술지에 논문 「온라인 게임에 대한 인식 유형과 그 특성에 대한 연구」를 게재하였다.



#### 김현아 교수, 다문화상담 및 인지행동치료 관련 논문 게재

상담심리학과 김현아 교수는, 2013년 6월 한국상담학회 학술지에 논문 「다문화상담 관련 종사자의 다문화 수용성과 다문화상담자 자질의 관계: 다문화상담자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8월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 학술지에 논문 「성인 여성학습자의 부적응 도식유형에 따른 우울, 정서조절 전략의 집단 간 차이」를 게재하였다.



#### 김현진 교수, 교육심리 관련 논문 게재

상담심리학과 김현진 교수는, 2013년 9월 한국교육심리학회 학술지(교육심리연구)에 논문 「사이버 대학생의 환경적 학업방해 요소 및 완벽주의와 학업지연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게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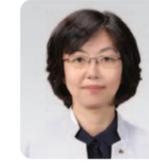
#### 박기훈 교수, 스마트러닝 관련 논문 게재

사회복지학과 박기훈 교수는, 2013년 6월 국제 e-비즈니스학회 학술지에 논문 「e-learning에서 스마트폰 활용이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게재하였다.



#### 박종선 교수, 사이버대학 교과특성 관련 논문 게재

상담심리학과 박종선 교수는, 2013년 9월 교육공학연구 학술지에 논문 「사이버대학 교과특성에 따른 수업 운영요인의 효과 연구」를 게재하였다.



#### 박형원 교수, 사회복지 관련 논문 게재

사회복지학과 박형원 교수는, 2013년 8월 한국콘텐츠학회 학술지에 논문 「사회복지과목 이수 대학생의 인권감수성의 대한 탐색적 연구: 원격대학 성인학습자를 중심으로」를 게재하였다.



#### 서영수 교수, 이러닝 기반 투자 및 금융보험 관련 논문 게재

금융보험학과 서영수 교수는, 2013년 8월 과학문화전 시디디자인연구소 학술지에 논문 「이러닝 기반의 투자 심리학습이 학업만족도와 투자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2013년 9월 아시아 유럽미래학회 학술지에 논문 「스웨덴 사망자 수의 변환점 분석: 사망시점과 연금지급 시점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를 게재하였다.



#### 이서영 교수, 노인복지 관련 논문 게재

노인복지학과 이서영 교수는, 2013년 6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학술지에 논문 「노인요양시설 케어인력의 역할 및 역량에 관한 연구」를 게재하였으며, 7월 한국콘텐츠학회 학술지에 논문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인식과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를 게재하였다.



#### 이우경 교수, 상담심리 관련 논문 게재 및 청소년상담사 관련 저서 출간

상담심리학과 이우경 교수는, 2013년 9월 SSCI저널 Asia-Pacific Psychiatry에 논문 「Theory of mind in schizophrenia : correlation with clinical symptomatology, emotion recognition and ward behavior」를 게재하였으며, 2013년 8월 「청소년상담사 2급 한권으로 올인하기」(정훈사)를 출간하였다.



#### 이지영 교수, 다문화상담 관련 논문 게재

군경상담학과 이지영 교수는, 2013년 8월 한국재활심리학회 학술지에 논문 「다문화 현장전문가가 인식하는 다문화 내담자의 주요 문제와 특성」을 게재하였다.



#### 이재웅 교수, 북한 민법 관련 논문 게재

부동산학과 이재웅 교수는, 2013년 9월 법학논총 학술지에 논문 「북한 민법의 발기 계약의 특징과 평가를」를 게재하였다.



#### 이정원 교수, 군 상담 관련 저서 출간

군경상담학과 이정원 교수는, 2013년 8월 「장병을 위한 군 상담 프로그램」(교문사)을 출간하였다.



#### 이향아 교수, 색채 관련 논문 게재 및 작품 전시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이향아 교수는, 2013년 6월 한국일러스트레이션학회 학술지에 논문 「e-learning 콘텐츠 제작의 색채 기준표에 관한 연구 - 제작자를 중심으로」를 게재하였으며, 2013년 8월부터 9월까지 한국여성시각디자인협회에 작품 「KWD의 변신은 무죄」를 전시하였다.



#### 이희연 교수, 사회복지 관련 논문 게재

사회복지학과 이희연 교수는, 2013년 8월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학술지에 논문 「학교폭력 경험에 관한 문화기술지를」를 게재하였다.



#### 임세희 교수, 사회복지 관련 저서 출간

사회복지학과 임세희 교수는, 2013년 9월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공동체)」를 출간하였다.



#### 임태순 교수, 재무설계 관련 논문발표 및 경영전략 저서 출간

금융보험학과 임태순 교수는, 2013년 8월 (사)행복한부자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행복한 노후를 위한 재무설계」란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2013년 8월 「글로벌 경영전략」(한국학술정보)을 출간하였다.



#### 정상원 교수, 한국비영리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사회복지학과 정상원 교수는, 2013년 6월 한국비영리학회 학술지에 논문 「종교인구의 자선적기부 행태에 관한 연구」를 게재하여 학회로부터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 차명희 교수, 게임캐릭터 관련 논문 게재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차명희 교수는, 2013년 9월 한국컴퓨터게임학회 학술지에 논문 「반응형 게임캐릭터의 장면관리 메모리 엔진연구」를 게재하였다.



#### 한수미 교수, 청소년상담사 관련 저서 출간

상담심리학과 한수미 교수는, 2013년 8월 「청소년상담사 2급 한권으로 올인하기」(정훈사)를 출간하였다.